

대만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의 과제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의 대조분석 교수법

정윤도*

1. 서론

1.1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조분석¹ 교수법의 필요성

일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채용되고 있는 대조분석 이론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이 증가된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모어의 언어적 성격이 외국어의 학습에 간섭을 미친다는 가설이지만, 반면에 학습자의 모어가 학습 외국어와 유사한 점이 많을 경우라면 모어로부터 전이되는 유사한 언어적 성격은 오히려 외국어 습득에 이점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에 임하는 교사라면 특히 초기의 자모 발음 학습 과정에서 가장 활발히 모어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서 도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만 학습자가 한국어 자모 발음을 익히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내재해 있는 중국어의 음소와 음절구조를 무의식적 혹은 의도적으로 한국어에 전이시키는 현상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된 바로, 이를 대부분 모어의 간섭이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 여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어 발음습득에 있어서 대만인 학습자가 주음부호식으로 음소를 표기하는 중국어와 민남어 방언을 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모발음에서 오류나 실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특정 음소나 독특한 억양도 나타나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어 발음에 유리한 조건도 다분히 존재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1.2 대조분석법에 기초한 한국어 발음교육의 의의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조분석법 이론에 기초한 외국어 교수법과 관련된 가정을 통해,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에 있어서의 그 의의와 한계를 타진해 보았다.

다음은 대조분석이론에서의 외국어 교수법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들이다.²

- a. 언어는 일단의 습관들이다. 즉 언어 습득은 새로운 습관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u M o Mho 8 M 8 U\-'M #'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¹ 안상철, 최인철(2007),p.10.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연구에 대한 이론적 틀은 행동주의 (Behaviorism)와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i qnh X Xih X X fX† C¥° X qnoaXX

X안상철, 최인철(2007),p.10-11

- b. 모어가 대상언어의 학습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유발시키는 주요인이다.
- c. 대상언어 학습에서 발생하는 실수가 모어와 대상언어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d. 습득에서 어려운 부분은 반복을 통해 학습되어야 하는 반면 두 언어 간 유사한 점은 그리 강조해 학습될 필요가 없다.
- e.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과 쉬움은 모어와 그 대상 외국어간의 차이점 혹은 유사점에 의존한다.

이상의 가정은 결국 두 언어 속성의 차이가 대상 언어 습득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의 습득은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 동기와 노력, 태도, 언어에 대한 인지적 민감도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복합된 총체적이고 장기 적인 학습 행위이기 때문에 모어의 전이현상만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의 전부가 아닌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 발음교육에 있어서 빈번히 나타나는 모어 전이 현상이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과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대조분석 연구에 기초한 교수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본고는 필자가 대만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의 효율을 드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한국어 발음교육의 과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의 하나로,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의 대조 분석”을 통해 대만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모음을 가르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문은 상기 대조분석법 이론의 가정들에 기초하여 세 방향으로 노력해 본다.

첫째는, 위 가정(a)에서 제시한 것처럼, 결국 대만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란 새로운 언어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함이라면 모음발음 교육 역시도 당연히 ‘표준발음규정’에 준한 발음 교육이 되도록 교수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둘째로는, 위 가정(b, c)에 기초해 연구 대상은, 현재 발음교사의 대부분이 한국인임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의 모음의 특성, 음절 형성에서의 역할과 배합의 제한을 위주로 한국어 모음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셋째로, 행동주의적 교육관에서 비롯된 위 (d,e)의 가정에 동감해 대만인 학습자에게서 오류 및 실수가 예측되는 학습의 어려운 점을 제시해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참고해 반영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강구해 본다.

이러함은 위 가정처럼 일선 교사로서 모어의 간섭을 방지한다면, 분명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과 쉬움은 교사의 자질에 따른 발음교육 품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로 작용되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의 대조분석

본 장에서는 발음교육과 관련해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의 음소 체계와 음

절에서의 역할 등 그 속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음소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해 구체적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절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의 특질을 살펴 본다.

2.1 음소의 정의에서

한 언어의 말소리인 음성 체계에서 단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바로 음소(phoneme)이다.

광의적인 정의에서의 음소는 음운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음소는 운소와 함께 음운에 속한다. 이러한 음소는 자음이나 모음과 같이 시간적 연장을 가지고 실현되는 물리적인 말소리로서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강약·성조 등과 같이 음소에 얽히는 운율적 요소들을 가리키는 운소와 함께 음운에 속한다. 여기에서 자음과 모음의 음소를 ‘분절음운’, 운율적 요소인 운소를 ‘비분절음운’이라 부르기도 한다.³

그런데 각 언어마다 나타나는 음성적 속성의 인식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어서 나름대로의 음소체계를 생성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말소리 /l/[l]과 /r/[r]음의 경우는, 영어에서는 제각기 다른 별개의 자음으로 인식되어 의미를 구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 있어서는 탄설음[r]과 설측음[l]의 차이는 의미 구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이음으로 인식해 한 음소 /ㄹ/로 표기된다. 그리고 한국어 종성(coda)에 나타나는 /ㄹ/[l]음인 경우는 자음에 속하는 개별적 음소인데 반해, 상응해 나타나는 중국어 어말 유음은 개별 자음음소가 아닌 평순권설모음인 /ㄹ/ [ər(ə), ɛl] 속에 포함된 운미(韻尾, coda)적 성분이란 점에서도 한국어와 다르다.⁴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간에도 단어의 의미를 구별 짓는 음성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 다른 음소로 모음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표 1>과 <표 2>를 통해 대조해 보자.

(1)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의 대조관계

<표 1> 한국어의 모음(21개)

	단모음(10)										복모음(11)										
모음	ㅣ	ㅛ	ㅜ	ㅑ	ㅓ	ㅡ	ㅕ	ㅖ	ㅗ	ㅛ	ㅛ	ㅜ	ㅜ	ㅜ	ㅜ	ㅜ	ㅜ	ㅜ	ㅜ	ㅜ	ㅜ
음가	이	오	우	아	어	으	애	에	외	위	야	여	요	유	애	예	와	왜	워	웨	의
IPA	i	o	u	a	ə	ɨ	ɛ	e	ø	y	ja	jə	jo	ju	jɛ	je	wa	wɛ	wə	we	iy,
반모음	j	w	변이음						we	wi	변이음										i, i

³ 국어국문학자료사전(1998), 분절음운(segmental phoneme), 비분절음운(suprasegmental phoneme)

⁴ 鄭潤道(2012), 韓語子音/ㄹ/的特質與發音教育.p119-130

<표 2> 중국어의 모음(韻母, 6 개)

	單韻母(7)							複韻母(4)				聲隨韻母(4)					捲舌韻母(1)						
	介音(3)											(鼻韻母)											
주음	一	ㄨ	ㄩ	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병음	i	u	ü	a	o	e	ê	ei	ai	ao	ou	an		en		ang		eng		ng		er	r
IPA	i	u	y	a	ɔ	ʉ	e	ei	aɪ	aʊ	ou	aŋ	ɛŋ	ən	n	aŋ	ɤŋ	ŋ	ə	r			

분절음운적 음소의 개념과 체계에서 두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면:

- 1) 한국어는 단모음(10)과 이중모음(11) 두 종류로 모두 21 개 모음이 있다. 반해 중국어 모음은 총 16 개로 단모음單韻母(7)과 이중모음複韻母(4) 외에도 한국어 모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음절핵 모음 뒤에 한정되어 비음 /n/[n], /ŋ/[ŋ]을 수반한 비음모음聲隨韻母/鼻韻母(4)과 유음/r/이 딸린 권설모음捲舌韻母(1) 등 그 종류가 두 개 더 있어 모두 4 종류의 총 16 개로써 모음의 종류와 개수에서 한국어와 다르다.
- 2) 그 중 중국어 단모음 /ㅛ/[ʉ]와 /ㅛ/[ɔ]의 경우, 그 음가를 한국어로 전사해 본다면 한국어의 /기/ 처럼 이중모음식 발음의 단모음으로 [오+어]의 [어]와, [오+어]의 [오]에 가까운 음이다. 이 두음은 대만 학습자에게는 /ㅛ/와 /기/로 인식되어 음가의 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나 엄격히 구분하면 원순적 속성의 정도와 혀의 위치에서도 한국어 모음 /기/와 /ㅛ/와는 조음점의 혀 위치와 높이가 달라 새로운 발음 습관이 형성 되어야 하겠다.

2.2 운율적 요소에서

중국어는 영어처럼 특히 모음의 경우에 성대의 진동정도에 따른 피치(pitch)가 달라지며 다른 악센트가 나타나며 의미의 차이를 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처럼 강세를 위주로 하는 언어를 억양언어, 중국어처럼 성조를 위주로 하면 성조언어라 한다.⁵ 이런 언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언어에서도 화용적으로 같은 문장이라도 끝부분의 억양이 내려오면 평서문, 올라가면 의문문이 된다. 한국어도 억양에 따른 평서문의 “가요.”와 의문문의 “가요?”가 있으며, 경상도 방언에서 비교적 뚜렷한 “저사람 말이 잘 달린다”, “저사람 말이[ma:l-i] 많다” 처럼 모음의 장단에 의한 의미 구별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어나 중국어처럼 뜻을

⁵ 억양언어(抑揚言語: intonation language)·성조언어(聲調言語: tone language)

구별짓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 한국어에서는 거의 유념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2)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의 운율적 요소 대조

a. 한국어: 장단- 眼[눈]과 [雪눈:], 馬[말]과 話[눈:]

b. 중국어: 사성- 媽[ㄇㄚˊ], 麻[ㄇㄚˊ], [碼ㄇㄚˊ], 罵[ㄇㄚˋ], 嗎[ㄇㄚˊ]

2.3 성절성에서 [+syllabic]

음절핵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리를 성절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음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는 비음(nasals)과 유음(liquids)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점은 한국어에서는 모음만이 성절성을 지닌 반면, 중국어는 영어의 button[ˈbʌtn], bottle [ˈbɒtl]처럼 어말 비음과 유음도 성절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유형의 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성절성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 어와 중국어의 음절은 기본상 모두 CVC 구조 하에 한국어는 21개모음이 음절핵으로, 중국어는 <표3>처럼 16개 모음이 음절핵으로서 작용하며 한 음절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표4>처럼 한국어와 중국어 음절 구조를 상세히 대조해 보면, 한국어는 10개 유형으로 중국어는 12개의 음절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 배합에 따른 음절 유형의 대조

<표 3> 중국어의 자음과 모음 음운(37)

자음(聲母 21)						모음(韻母 16)				
唇音	舌尖中音	舌根音	舌面前	捲舌音	平舌音	介母	單韻母	複韻母	鼻韻母	捲舌韻母
ㄱ	ㄷ	ㄱ	ㄴ	ㄷ	ㄲ	一	ㄚ	ㄛ	ㄜ	ㄝ
ㅋ	ㅌ	ㄱ	ㄴ	ㄷ	ㄲ	ㄴ	ㄚ	ㄛ	ㄜ	ㄝ
ㄷ	ㄸ	ㄱ	ㄴ	ㄷ	ㄲ	ㄴ	ㄚ	ㄛ	ㄜ	ㄝ
ㄸ	ㄸ			ㄷ			ㄚ	ㄛ	ㄜ	ㄝ

<표 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유형의 대조

	V 형	V+C 형	C+V 형	C+V+C 형
한국어	V /아/ [a]	VC/안/	CV/마/	CVC/한/
중국어	V /ㄚ/阿[a]	VC/ㄚ(Y n)/	CV/ㄇㄚˊ/[ma]	CVC/ㄍㄚˊ/
한국어	sV /야(ㅣㅏ)/ [ja]	sVC/양/	CsV/화/	CsVC/광/
중국어	sV /-ㄚ/雅 [ya]	sVC/-ㄤ(-ㄚˊ ㄩˊ)/ 羊[yaˊng]	CsV/ㄍㄚˊㄩㄚˊ/華[huaˊ]	CsVc/ㄍㄚˊㄩㄚˊ(ㄍㄚˊㄩㄚˊ)/ 光[guang]
한국어	Vs /의/	VC/얼/		

중국어	Vs/ㄟ (Y-)/ 愛[ai`]	VC/ㄨ(ㄷ r)/兒[er']	CVs/ㄍ ㄝ(ㄍ Yㄝ)/ 高[gao]	
한국어				
중국어	sVv/-ㄝ(-Yㄝ) 要[yao`]		CsVv/ㄍ ㄝ ㄟ(ㄍ ㄝ Y-) 乖[guai]	

두 언어의 음절 유형의 대조를 통해 발견한 점을 정리해 보면:

- 1)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최소음절형은 V, 최대음절형은 CVC이다.
- 2) 모음의 조음방식과 그 음가의 인식에 있어서, 한국어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식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 한 소리값이라면, 중국어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식뿐만 아니라, “sVv 要/-ㄝ`(-Yㄝ)/ [yao`]” 경우처럼 ‘개음+ 이중모음’의 삼벌식 모음조합으로도 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 3) 또한 음절핵 기능을 하는 성절성(syllabic)에서, 한국어는 단순 단모음과 이중모음만이 그러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들 모음뿐만 아니라 어말에 한정적으로 자음을 대동한 비음운모인 /ㄅ(Y+n)/, /ㄆ(ㄷ+ n)/, /ㄇ(Y+n)/, /ㄌ(ㄷ+ n)/와 권설운모 /ㄨ(ㄷ+r)/ 등도 모음에 포함된다.

<표 5> 중국어 음절 속의 공운모

주음부호	ㄗ	ㄘ	ㄑ	ㄒ	ㄓ	ㄔ	ㄌ
병음	zhi	chi	shi	ri	zi	ci	si
IPA	tʂ ^h i	tʂ ^h i	ʂ ^h i	ʐ ^h i	tʂ ^h ɿ	tʂ ^h ɿ	ʂ ^h ɿ

- 4) <표 4> 음절 유형의 대조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최소 음절형은 V형이다. 그 중 중국어의 경우로 예시에 나타나지 않은 특이 유형이 있다. 이는 소위 ‘공운모空韻’라 불리어 권설음(4) /ㄗ、ㄘ、ㄑ、ㄒ/과 전설마찰음(3) /ㄓ、ㄔ、ㄌ/ 등 7개 자음으로서 주음표기에서 단독으로 한 음절을 표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어 “이다”에 해당하는 “是”는 /ㄑ` / [ʂi/ʂ^hi], “자료, 자질”이라는 의미의 “資”는 /ㄓ/ [zi, tʂ^hɿ]로 주음식 표기에 있어서는 생략된 모음인 /-/[i, ɿ]에 근거해 한 음절을 이루는 특수 용례이다. 그 표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생략된 모음은 공모음이라 불리며 실지 음가는 한국어[으]에 가깝다. 중국어에서의 그 [의]음은 위 권설음과 마찰음들이 조음 후에도 설측쪽에서 지속되는 진동(buzzing)음으로 간주하여 의미를 구분해 주는 의식적 말소리가 아닌 자연음으로 간주해 달리 음소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도 이와 유사한 설측음/ㄹ/과 마찰음/ㄱ/[s], /ㄷ/[s'], /ㅎ/[h] 등 자음이 있지만, 초성 자음은 중성 모음과 결합하지 않고는 그 음가가 실

현되지 않는 음절 배합의 제약을 받고 있어 중국어처럼 공운모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2.4 전이음 위치에서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전이음이 합쳐진 것으로 전이음이 선행하는 상향성 이중모음 (on-glide diphthong)과 반대로 전이음이 주음절 모음을 뒤따르는 하향성 이중모음(off-glide diphthong)으로 나뉜다. 한국어는 /-i/를 포함한 이중모음 모두가 상향적인 속성을 지니는데⁶ 반해 중국어의 이중모음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모두 하향적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상반된 속성에서 특히 현대한국어에 이미 단모음화된 /ㅞ/의 경우는 철자상으로 보아도 같은 반모음 /y/[j] 계열 하향이중모음인 중국어 /ㄨ/[ai]의 전이 현상으로 단모음 화 음가 추측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반면에 중국어 이중모음의 하향적 습성에서 /-i/[ij]식의 이중모음식 [의]로의 발음은 오히려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중모음식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변이음 [에], [이]에 크게 영향을 받아 표준발음을 회피하고 있다.⁷

2.5 음절의 계층적 구조면에서

음절의 구성성분인 분절음의 배합적 관계를 위주로 살펴보는 계층적 구조는, 음절초성 (Onset), 음절핵(Nucleus), 음절종성(Coda)인 음절의 구성 성분들의 관계에 따라서 삼분 지구조, 4개의 분지구조⁸로 나누어진다. 그중 한국어는 좌분지 구조에 가까운 삼분지 구조로, 중국어는 이와 다른 우분지 구조에 속해 서로 다른 속성을 보인다.

아래 <표6>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모음에 해당하는 중성과 운모가 주요 성질을 이루는 음절핵을 담당하고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중국어에서 운모라는 단위는 위 예시 /iaŋ/과 같이 복합적인 것이다. 그중의 /i/는 운두(개모介母)로서 반모음 역할을 하며, 음절 어말 운미의 [ŋ]은 음절핵에 해당하는 운복에서 떼어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어처럼 독립된 하나의 종성 음소가 아닌 모음 운모에 딸린음이다. 그 원래의 작용은 각운을 위해 존재하는 음에서 비롯되었다.

⁶ 鄭潤道(2013.6), 모음/-i/ 자질과 발음교육과 관련해

⁷ 동상주

⁸ 관련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고은복(2006) 학위논문 참조 바람

1) 기본 모음 생성과 발음교육 진도

한국어 음절의 핵이 되는 21 개의 중성모음의 음가를 구성하는 13 개 모음발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모음 개념과 10 개 단모음 음소」 → 「반모음의 개념과 3 개 반모음 음소」 → 「이중모음의 개념과 11 개 복모음 음가」의 순서로 교육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

2)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의 체험 교수법

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의하여 고모음·반고모음·반저모음·저모음으로 구분된다. 입을 조 그렇게 벌리면 입안의 공간이 좁아져 자연 혀의 위치가 높아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 입안 공간이 넓어져 혀가 평평히 내려 앉는다. 이러한 실제의 입놀림을 통해 학습자에게 체험을 통해 문헌에 나타나는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음개구도 이론보다는, 학습자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따라하며 입을 벌린 크기와 모양에 다른 혀높이와 위치 등에 기초한 체험식 비교를 통해 모음의 분류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3) 다른 이중모음 속성의 비교 교수법

한국어에서의 이중모음은 소리값 생성에 있어서 그 요소가 반모음과 단모음 두 개로 돼 있지만 그 소리값은 단모음과 같이 한 소리 음가임을 주지 시킨다. 즉, 이중모음 /ㅑ/는, 그 조음 방법에서 입모양과 혀가 처음에는 반모음 [이] 위치에서 시작하여 연이어 입을 벌려 [아]로 조음부위를 이동하며 소리내는 한 소리음 [야]이다. 그리고 한국어 복모음은 이중모음만이 있음을 강조해 중국어의 복모음엔 이중모음뿐만 아니라 삼중모음도 있을 수 있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마치 한국인에게 영어 알파벳트의 /O/[o] 소리 값이 [오우]로 두 소리가 연이어진 이중모음인 듯 인식되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오]와 [우]는 별개의 음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영어와 중국어와 달리 거의가 상향적 속성이다. 이는 폐쇄음 속성 인 초성자음에 근거해 닫힌 입이 열리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이동음(glides)을 대동하며 뒤따른 주성절 단모음과 포개져 발음되는 한 소리값임을 인지시킨다. 반면 중국어의 이중 모음은 하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 예시(4)처럼 한국어 이중모음은 닫힌 입에서 열리며, 중국어는 벌린 입에서 다문 입으로 전환하는 차이를 입모양을 통해 가시 화해 대조하며 인식시킨다.

(4)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모음 속성의 대조

- a. 한국어: /ㅑ/[이→아=야], /ㅕ/[오→아=와]
- b. 중국어: /ㄝ/[아→이=ㅑ], /ㄨ/[아→오=ㅕ]

3.2 표준발음의 원칙과 변이음 발음교육

‘표준발음규정’에서 보면 몇몇 단모음이 이중모음식으로, 몇몇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변이음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사의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 듣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저해되지 않아 수용하나, 자기 표현을 위한 말하기나 문장의 낭독 및 쓰기의 경우에는 철자 음운에 충실한 표준 발음을 독려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 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인에게 자연스러운 언어 습성도 모방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예로는 소유격조사 “의” 발음을 [에]로 익혔을 경우, 듣기와 쓰기에서 부사격조사인 “에”라 이해하거나 들은 대로 “에”로 쓰기도 한다. 다른 예는 변이음으로 인해 종결어미“-오”와 연결어미“-요”의 혼동이다. “어서 오십시오”를 “어서 오십시오요”로, “이건 사과요, 저 건 배이다”를 “이건 사과오, 저건 감이다”, “오빠가 아니요, 남편이다”를 “오빠가 아니오, 남편이다”로 발음하고 쓰기도 한다.

3.3 음운변동과 축약의 발음교육

또 위와는 달리 ‘표준발음규정’에서는 몇몇의 이중모음은 철자와는 달리 단모음으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예는 대부분이, ‘표준발음법’ 제5항에 의거한 /ㄹ, ㄹ, ㄹ/의 경우로 한정된다. “싸움에 저서”, “옥수수를 썬”, “쳐다보다” 등 용언의 활용 형에 나타나는 축약으로서의 “저, 썬, 쳐”는 단모음 [저, 썬, 처]로만 발음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구개음 /ㅈ, ㅈ, ㅈ/ 뒤에 오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구별이 한국인에게도 그리 쉽지 않지만 한국인은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단모음으로 발음함을 익히게 된다. 그러나 학습 환경이 다른 대만인에게는 교육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는 “結/ㄉㄧ 一 世 / [jié 지 (이)에→제]”, “別/ㄉㄧ 一 世 / [bié 비(이)에→베]”, “裂/ㄉㄧ 一 世 / [liè 리(이)에→레] 등의 발음은 익숙해 어렵지 않다. 즉 한국어에서는 “예, 레”는 언제나 이중모음 [키]로 발음해야 하지만 그밖의 다른 자음과 결합할 때에는 단모음 [키]로 도 수용하여 “의레, 차례”나 “시계, 지혜” 등 어휘에서의 /ㄹ/가 대부분 단모음 [에]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중국어가 모어인 대만인에게서는 이중모음 /키/[예]가 단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 조음의 어려움에서가 아닌 한국인들의 시범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겠 다.

3.4 음운 구분식 발음교육

1) /ㅈ/와 /ㄱ/의 구분

/ㅈ/와 /ㄱ/음은 /ㄷ/와 /ㄷ/음과 비교하여 볼 때 입술을 평평히 펴고 입을 크게 벌리며 혀 위치를 낮추어 목청에서 우러나는 소리이다. /ㅈ/와 /ㄱ/음을 구분시키려면, /ㅈ/음은 입을 크게 둥그렇게 벌리고, /ㄱ/음은 턱을 낮추어 긴 타원형 입모양을 내며 발음케 한다. 단모음의 발성은 한 입모양에

서 한 숨으로 발음하는 한 소리값이므로 발성 후 잠시 원래 의 입모양을 유지해 입 모양이 변하여 다른 음이 첨가되지 않도록 유의시킨다. 이러한을 이해시키려면 [아]-[아]-[아]식으로 연달아 세 번 정도 반복하며 음절간 입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음을 체험시켜 본다.

2) /ㄴ/와 /ㄷ/의 구분

/ㄴ/음과 /ㄷ/음은 입술을 오무리며 입을 작게 동그랗게 유지한 모습에서 입술 근처에서 숨을 살짝 들여 마셨다가 내뿜듯이 내는 소리이다. 이때 입모양이 작아지므로 자연 혀의 위치가 높아진다. /ㄴ/음과 /ㄷ/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ㄴ/음은 입술을 입안으로 말듯이 입술을 앞니에 붙이는 자세인데 반해, /ㄷ/음은 입술을 앞니에서 떼어 밖으로 말아 올려 마치 오리입처럼 입술을 오무리며 내밀며 발음하여, /ㄴ/와 차이를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ㄴ/를 영어식으로 [오우]라고 발음하거나, 중국어 모음 /ㄨ/[u]의 [오+어]식 오류를 방지하려면 두 음의 분리를 위해 반복 훈련시킨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오무린 입술에 열중하여 동그란 입모양을 유지시키는 훈련을 통해 입술이 느슨해지면서 뒷소리 [우]음이 나 [어]음으로 전향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거울을 보고 연습하거나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양입가를 짚어 입술을 입 안으로 밀며 입을 좁고 동그랗게 좁혀 주는 교정 훈련도 효과가 있다. /ㄴ/와 /ㄷ/음의 구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손 [순/순(x)]”, “일본 [일본/일본(x)]”, “원숭이 [원숭이/원숭이(x)]” 등 단어를 읽혀 보면 알 수 있다.

3) /ㅡ/와 /ㅣ/의 구분

/ㅡ/와 /ㅣ/의 구별에 있어, /ㅡ/는 입술을 자연스레 일자로 평평히 펴 아랫니가 조금 보일 정도로 입이 다소 벌어진 상태로 발음하고, 상대적으로 /ㅣ/는 양 입가를 볼 쪽으로 잡아당겨 위아래 어금니와 입술 간의 간격이 좁아지며 발음토록 한다.

4) /ㅐ/와 /ㅔ/의 구분

단모음 /ㅐ/와 /ㅔ/의 구분도 대만인 학습자가 어려워 한다. 두 모음은 한국인도 듣기에 만 의지해 발음을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어휘의 철자법 표기와 문구 전후 뜻에 의거해 구분이 가능하다고 귀뜸해 준다. 그러나 발성에 있어서는 구별해 발음하도록 권장한다. 두 발음의 발성 차이는 위·아래턱 간의 간격에 있음을 강조 한다. /ㅐ/는 턱을 좀더 내려 위·아래 어금니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입술을 수평으로 벌려 내는 반개구음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ㅔ/는 두 어금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입가를 밖으로 당기면 구강 공간이 좁아지며 뒤혀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폐쇄음으로서의 /ㅔ/음이 된다.

5) /니/와 /긔/의 구분

/니/와 /긔/음은 한국인에게도 어려워 이중모음식 발음을 허용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만인 학습자들에게서 단모음으로서의 이상적인 발음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중국어에 /니/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니/와 /긔/ 두 모음의 공통점은 글자에서도 보여지듯 동그랗고 조그맣게 입을 벌리는 /ㄴ, ㄷ/의 원순반모음에 전설평순모음 /ㅣ/가 겹쳐져 있고, 두 음 간에는 /ㄴ/와 /ㄷ/의 차이로 입술을 입 안쪽으로 말고 내미는 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니/는 우선 입 모양을 /ㄴ/와 /ㅣ/ 입모양의 중간 정도로 고정시켜, [오]처럼 입술을 잇몸에 붙혀 안으로 말은 상태에서 고정시켜 살며시 숨을 들이다 내뿜으며 발음한다. /긔/의 경우는 중국어 다모음 /니/보다도 입술을 더 둥글게 오무려 더 앞으로 내밀면서 앞니가 보이게 치켜 밖으로 내밀며 하도록 시범을 보이면 언어에 재질이 있는 대만들은 /니/와 /긔/를 잘 발음해 낸다.

6) /긔/와 /ㄴ/의 구분

대만인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긔/와 /ㄴ/의 혼동은 중국어 /ㄱ/[ㄱ]와 /ㄷ/[ㄷ]의 영향 때문이라 여긴다. 그리고 주로 /ㄴ/음을 내면서 입을 작고 동그랗게 오므리지 않았거나, 입술을 입몸에 붙여 안으로 말아 넣지 않은 채, 평평하게 하여 [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오류가 생긴다. 이때는 학습자에게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양 입가를 집어 앞니쪽으로 밀어 입을 좁고 둥글게 좁혀주는 교정을 실시하면 큰 효과가 있다. /긔/와 /ㄴ/음의 구분 이 되었는지를 알려면 “손거울”, “고기” 등 /ㄴ/와 /긔/가 동시에 들어간 어휘를 반복해 읽혀 보면 알 수 있다.

7) /긔/와 /ㅡ/의 구분

/긔/와 /ㅡ/ 발음에서는, 대만 학습자들이 주로 /긔/를 [으]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어 단모음 /ㄱ/[ㄱ]의 영향에서 온다. 입을 길고 크게 벌리며 아래턱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 혀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긔/와 /ㅡ/음의 혀 높이 차이가 좁혀져 분리되지 못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긔/ 발음을 위해 아래턱을 좀 더 내려 입모양이 커지며 긴 타원형이 되도록 교정해 주면 자연 혀의 위치가 낮아져 두 음이 구분되어 진다.

8) /니/의 표준발음과 변이음

이중모음은 앞에서 지적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잡혔다면 대부분의 대만 학습자들은 무리가 없이 쉽게 익힌다. 그 중 어려워 하는 발음이 있다면 /의/로서, 상·하향식 발음도 실은 무난함에도 불구하고 난해해 하는 이유는 표준발음규정에 의거한 변이음 사용에서의 적절한 용

례의 구분이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중모음 식 /-i/의 발음은 /-/ 자세에서 / /로 가며, [으/ㅜ]음과 [이/i]에서의 장·단음적 피치 위치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그와 더불어 “의”와 관련된 단모음화된 변이음 규칙을 알려 줄 때 변이음의 사용은 타인과의 의사 소통에 있어 알아듣도록 수용하지만, 초급 학습자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발음은 우선적으로 [의]로써 발음하도록 요구한다. 동시 일부 방언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첫음절에 오는 “의”를 잘못된 단모음으로 발음하여 “의사”를 [이사]로 하는 것은 표준발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주의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 평소 언어 생활에서나 교육 시범에 있어 표준어 발음에 의거해 발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4.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는 대조분석 이론이 근거하는 가설에 기초해 대만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와 대상 언어인 한국어의 모음 발음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전제로 두 언어의 모음을 언어학의 기본 각도에서 대조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상기 가설처럼 한국어 모음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습의 어려움이 증가되므로 이를 예측해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혀보고자 했다. 그리고 중국어 간섭의 예측을 통해 한국어 모음에 전이되는 중국어 모음 및 혼동하는 한국어 모음에 대해서도 그 구분을 위한 교수법을 제시해 새로운 언어 습관을 익히도록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와 한국어 간 유사한 점을 발굴해 모어로부터 전이되는 언어적 속성이 한국어 습득에 이점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점도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더욱 심도있는 대조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실감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이번 연구에서 남긴 과제이며 얻은 큰 수확이다.

참고문헌

한국어

- 고은복(2006), 성분통어와 우분지 음절구조의 타당성,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산출에 대한 종단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논문
- 김정옥(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 체계 대조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상철, 최인철(2007), 영한대조분석, 한국문화사
- 이기문, 김진우, 이상억(1984), 국어음운론, 일지사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鄭潤道(200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준 발음 교수법-중국인을 위한 자모 발음 및 인지 교육에 대하여, 韓國學報 第二十期,
- 鄭潤道(2012.6), 韓語子音質與發音教育, 外國語文研究 第十六期, 國立政治大學外國語文學院, p119-130
- 鄭潤道(2013.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의 과제-모음 /-/ 자질과 발음교육과 관 련해(韓語母音/-/的特質與發音教育), 제 2 회 태평양 한국어 교육/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 p. 57-72
- 허웅(1979), 국어음운학, 정음사
- 국어국문학자료사전(1998), 한국사전 연구사

중국어

- 李玉惠(2004), 淡江大學「國音及說話」課程資料
- 高佳裕(2008), 談注音符號教學-針對外國學生所做的討論, 政大華語文教學中心, <http://140.119.190.170/chinese/workshop.php>
- 國立臺灣師範大學華語語音學編輯委員會(2012), 「華語語音學」, 正中書局

**A Study on the Teaching Korean Language Pronunciation for Taiwanese –
Focusing on the Teaching Methods of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and
Chinese vowel system**

Chung, Yun-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eaching plan which can induce correct Korean vowel pronunciation. This would be done by a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The Taiwan Chinese - The Taiwan Notional Phonetic Alphabet vowel systems, using its result to predict errors which by Korean teachers teach to Taiwanese of the produce while learning Korean vowel pronunciation and correcting the errors effective based on the contrastive linguistics knowledge.

This thesis is constructed as following. Chapter II : Explains about the purpose, methods and preceding studies of this study. Chapter III : Analyzes Korean and Chinese vowel systems based the phonetics, and contrasts two vowel systems- a phonemic system, syllable type, syllable structure and the const ext. Using to know content to its result the similarities and distinctions of vowel systems were described to predict errors of Taiwanese learners. Chapter IV: This is about the Teaching plan explains, Adduced of articulation and manner of articulation to help learners in acquiring accurate phonetic value of each vowel, based on the contrast between in Korean and Chinese. Also, pronunciation practicing method using minimal pair was suggested.

**Key words: Korean Vowel, The Chinese language Vowel, The Taiwan Notional
"Rj qpgvle'Alphabet, Contrastive Analysis, Utterance Education**

